

번호 09-3

제 목	국문	외래 주사제 사용의 변동추이 연구			
	영문	Trends of parenteral drug usage in out-patient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임준 ¹⁾ , 김용익 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영문	Jun Yim ¹⁾ , Yong-ik Kim ¹⁾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약	보건관리(○) 역학() 환경()	발 표 자	일반회원() 전 공의(○)	발표 형식	구 연(○) 포스터()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99년 10월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진료비 중 총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32.5%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경구제보다 부작용이 심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도 1997년 진료비 중 주사제 비율이 10.9%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약제의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대안을 찾는 일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일부 외래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 편입되게 되면서 외래주사제 사용의 변동추이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 외래 주사제 사용의 변동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각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외래 주사제 사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외래 주사제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 ① 관련문헌을 고찰한다.
- ②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내역경향조사 자료를 조사하여 외래 주사제 사용 현황을 건수비와 금액구성비 등으로 연도별로 제시한다.
- ③ 의료기관종별, 약품성분별, 전문과목별,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외래주사제 사용에 따른 금액구성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외래주사제 사용의 변동에 각 변수가 미친은 기여정도를 상관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3. 연구 결과

- ① 먼저 외래주사제 사용현황을 건수비로 살펴보면, 88년 70.34%, 90년 62.52%, 92년 61.58%, 94년 63.57%, 97년 55.9%로 10년동안 건수대비 20.5% 감소하였다.
- ② 반면 외래경구제 사용은 88년 86.86%, 90년 82.88%, 94년 89.16%, 97년 83.89%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의료기관종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 ③ 외래주사제 사용현황을 금액구성비로 살펴보면, 88년 7.35%, 90년 5.61%, 92년 4.49%, 94년 4.27%, 97년 3.08%로 10년동안 58.1% 감소하였다.
- ④ 반면 외래경구제 사용에서의 금액구성비를 보면, 88년 22.53%, 90년 21.10%, 92년 26.42%, 94년 29.89%, 97년 32.06%로 10년동안 42.3% 증가하였다.
- ⑤ 의료기관종별로 외래주사제 사용의 금액구성비를 살펴보면, 3차기관, 병원, 의원은 90년 대비 97년 주사제 사용금액구성비가 20-50% 정도 감소하였으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
- ⑥ 의료기관종별, 약품성분별, 전문과목별, 지역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사제 사용현황과 분석 결과는 별표와 같다.

4. 고찰

전체 주사료 중 약제비만을 보았을 때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각 의료기관의 외래주사제 금액구성비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 강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의 강화는 전체적인 약제비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주사제 처방 감소에 따른 경구제로의 이전 효과만 나타났다고 하겠다.

또한 외래주사제 사용현황에 기초해볼 때 의료기관종별로는 종합병원이 주사제 사용 감소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 주사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